

# 이주여성들 “내 아이도 오바마처럼...”

광주·전남 다문화가정·외국 노동자 희색

흑인인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전남지역 외국노동자, 이주여성들도 한국 내 외국 이주민 지위 향상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자신들과 같은 다문화가정 출신으로 ‘마이너리티(소수집단)’를 친목하고 미국이라 큰 나라를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대리민족감을 느끼고, 그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나아가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 이주노동자와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2세도 한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선물받았으며 기뻐했다.

오바마 후보의 당선 소식이 알려진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오바마 당선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맥주 몇 잔의 조출한 파티였지만 1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오바마

의 당선이 마치 자신들의 승리인양 들떠 있었다. 이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오바마 뉴스가 나올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탄생을 기뻐했다.

오바마 아버지의 고향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케냐 출신 외국인 노동자 조지 춘바(28)씨의 기쁨은 다른 이들보다 더했다. 조지 춘바씨는 “오바마가 마치 케냐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다”며 “흑인을 기피하는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고 환히 웃었다.

함께 기쁨을 나누던 케냐 출신 클리포드 아부로(22)씨도 “오바마의 당선은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승리이다”며 “오바마는 미국 내 소수집단의 갈등을 잘 통합할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도 흑인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남아계 이주여성들도 오바마의 당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국 사회에서 ‘편견’과 ‘보유’이라는 두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오바마의 당선으로 한국 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기대했다.



버락 오바마 후보가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5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외국인 근로자 문화센터’에 모인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바마의 승리를 자축하며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구례군 외국인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필리핀 출신 S(여·30)씨는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들(12)을 데리고 시집을 와서 항상 아이가 친구들에게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과

친한 한국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첫 아이를 입신한 김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필리(23·순천시 황전면)씨는 “피부색이 다른 자녀의 교육 문제를 제일 걱정하는 이주여성들은

입신과 동시에 ‘기쁨’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한국 대통령은 되지 못하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현주·이종행기자 ahj@



5일 조선대 IT공과대 3층 대강당에서 ‘향음주례(鄉飲酒禮) 시연’에 참가한 조선대 학생들이 예를 갖춰 술을 마시고 있다.

## “酒道란 이런 것”

음주문화 바로잡기 조선대서 ‘향음주례’

“공(公)이 먼저 오르시지요.” “주인이 먼저 오르시지요.”

한복을 차려입은 두 선비가 삶풀 앞에서 서로 자리에 오를 것을 양보했다. 이렇게 세 번을 양보한 뒤에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술을 한잔 마시면서도 서로에게 절을 물리며 예를 갖췄다. 대학가의 무분별한 음주문화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요즘, 술에 대한 예의법률을 가르키는 이색행사가 열렸다.

5일 조선대 IT공과대 3층 대강당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술마시는 문화를 보여주는 ‘향음주례(鄉飲酒禮) 시연’이 열렸다. 향음주례는 육례(六禮)의 하나로 고을의 유생을 전거하기 전 고을의 수장이 이들을 초대해 술을 대접하는 예식이다.

〈인터뷰 20면〉

이날 예식은 정읍시 철보면 시산리에서 내려오는 고현동 향약(무형문화재 1181호)의식에 토대를 뒀다. 준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비단계에서 정리까지 4~5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이날 시연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례(迎賓禮), 손님에게 술을 올리는 환빈례(獻賓禮), 주인이 받는 빙작주례(賓主主人禮), 여인이 차례로 잔을 물리는 여수례(旅酬禮) 등 대여섯 가지 의식으로 한시 간여동안 동안 치러졌다.

주인 역할을 맡았던 양성록(19·사학과 4년)씨는 “아무 생각없이 마시는 술을 조상을 지루할 정도로 지극한 예절을 갖춰 맘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이번 행사가 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또 저가의 쌀을 내놓는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도 비단계에서 정리까지 4~5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이날 시연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례(迎賓禮), 손님에게 술을 올리는 환빈례(獻賓禮), 주인이 받는 빙작주례(賓主主人禮), 여인이 차례로 잔을 물리는 여수례(旅酬禮) 등 대여섯 가지 의식으로 한시 간여동안 동안 치러졌다.

주인 역할을 맡았던 양성록(19·사학과 4년)씨는 “아무 생각없이 마시는 술을 조상들은 지루할 정도로 지극한 예절을 갖춰 맘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이번 행사가 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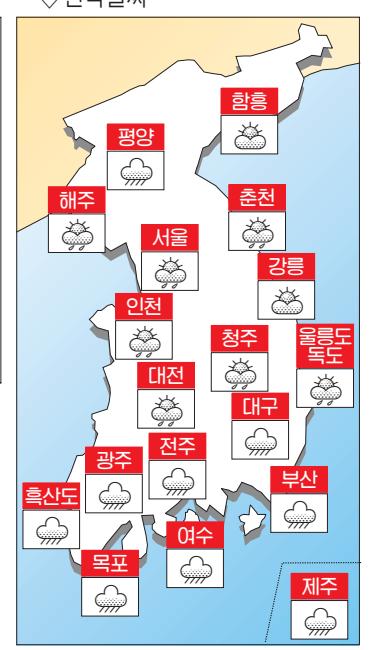
## 차가운 가을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해안지방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다.

11월 6일

(음 10월 9일)

◇전국날씨



기상안전화 : 국변없이 131(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씨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흐림
최저/최고	12/17	8/17	7/16	6/16	6/17	6/18

## 농민들 ‘쌀 저가 판매’ 화났다

### 대형마트 방문, 중단 촉구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봉쇄 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추도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농협은 최근 해남과 나주·영암 등 배추산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산지폐기의향을 조사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비료값과 기름값 인상으로 생산비가 급등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다.

5일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에 따르면 농민회 간부들이 지난달 31일 광주시내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쌀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농민회는 20kg들이 쌀 1포대를 3만 8천여원에 판매하는 마트 층에 ‘저가미 판매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을 좌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마트 층은 ‘농민회의 요구를 본사에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회는 또 저가의 쌀을 내놓는 RPC(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도

비단계에서 정리까지 4~5시간이 넘게 걸리지만, 이날 시연에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례(迎賓禮), 손님에게 술을 올리는 환빈례(獻賓禮), 주인이 받는 빙작주례(賓主主人禮), 여인이 차례로 잔을 물리는 여수례(旅酬禮) 등 대여섯 가지 의식으로 한시 간여동안 동안 치러졌다.

주인 역할을 맡았던 양성록(19·사학과 4년)씨는 “아무 생각없이 마시는 술을 조상들은 지루할 정도로 지극한 예절을 갖춰 맘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이번 행사가 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

### 광주환경운동연합 해킹

#### 1년분 자료 사라져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지난 1년여간의 자료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초 환경운동연합 52개 각 지역별 조직 가운데 42개 조직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충남 태안 기름유출 복구현장 사진과 대운하 반대 운동자료집 등 1년여분의 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난 1~9월까지의 자료가 삭제됐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법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주택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풍물장 010-2648-2550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최저가 비고

학동 대154.2/416 1423평 9억6천 원리설

율봉동 대137.2/219 8억2천 4억3천 근린시설

임신동 대162.2/103 4억2천 33억7천 근린시설

문화동 대119.2/159 111억 77억원 의문설

대인동 대267.2/533 2381천 129억원 근린시설

신민동 대226.2/109 2296천 10억원 근린시설

궁동 대371.2/165 952천 27억3천 근린시설

무신동 대272.2/1431 6792천 47939평 근린시설

우신동 대38.2/193 10억8천 근린시설

우동 대40.2/13 4억3천 2억4천 근린시설

보체동 대488.2/753 31억5천 20억원 차량학원

광교동 대117.2/209 73억7천 33억 차량학원

우신동 대168.2/115 3억4천 2억4천 차구점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수 최저가 비고

소재지 대43.2/394 2억8천 1억8천 주택,점포

우동 대82.2/118 3억6천 2억1천 근린시설

평생동 대44.2/127 4억9천 2억8천 주택,점포

임동 대32.2/60 1억4천 900만원 주택,점포

임동 대152.2/597 1695평 11억4천 주택,점포

송정동 대58.2/185 14억7천 6846평 해물제품

송정동 대95.2/578 13억7천 3억9천 대중수수나

송정동 대49.2/58 2억7천 1억2천 점포

송정동 대34.2/61 5억9천 5000만원 주택,점포

송정동 대152.2/597 1695평 11억4천 주택,점포

송정동 대58.2/185 14억7천 6846평 해물제품

송정동 대95.2/578 13억7천 3억9천 대중수수나

송정동 대49.2/58 2억7천 1억2천 점포

송정동 대34.2/61 5억9천 5000만원 주택,점포

송정동 대152.2/597 1695평 11억4천 주택,점포

송정동 대58.2/185 14억7천 6846평 해물제품

송정동 대95.2/578 13억7천 3억9천 대중수수나

송정동 대49.2/58 2억7천 1억2천 점포